

나그네를 사랑하라,,

안태영선교사 기도편지

2024년2월



2016년에 도착한 이라크 난민 하짐 가정



2018년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 다니엘 가정



2022년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 압둘라 가정



2023년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 지미 가정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신10:19)

2016년 부터 중동에 있는 난민들을 프랑스 툴루즈로 초청하고 정착시키는 사역을 프랑스 개혁신교회 소속의 난민구호단체랑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첫번째 초청 가정으로 2016년 이라크 난민 하짐 가족, 두 번째로는 2018년 시리아 난민 다니엘 가족, 세 번째로는 2022년 압둘라 가족, 네 번째로는 2023년 지미 가족이 차례대로 프랑스 툴루즈에 정착하였습니다.

난민들이 프랑스에 도착한 이후에 이들을 프랑스에 온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프랑스어를 가르쳐야 하고 비자, 병원진료, 자녀들 학교 입학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프랑스 정식 체류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약 1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절차가 워낙 복잡해서 불어를 알지 못하는 난민들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업무를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도착 이후 최소 1년 동안은 일을 할 수도 없고, 프랑스 정부의 지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매월 집세와 핸드폰, 인터넷,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2016년 부터 시작된 이 사역으로 현재 4가정이 무사히 정착 하였고 올 초 신년모임에 모두 함께 하였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라는 성경의 말씀 처럼 전쟁으로 하루 아침에 나그네 된 이들의 처지를 돌보는 것이 역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 영주권을 받고 기뻐하는 시리아 난민 다니엘

프랑스 영주권 획득한 다니엘
 다니엘은 2018년에 프랑스에 도착했는데 약 6년 만에 프랑스 영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작년 9월에 4명인 다니엘 가족이 프랑스 영주권을 신청하는 1,000유로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울 때에 이를 지원해 주었는데 최근에 영주권을 획득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특히 다니엘 가정은 시리아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대로 오랫동안 기독교 가정이어서 더 마음이 많이 쓰였던 난민이었습니다. 이들이 프랑스에서 더 잘 정착하여 살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년 모임에 함께한 난민가정들과 자원봉사자들

난민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
 2024년 1월말에 난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신년모임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신들의 삶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싫은 기색없이 밤이나 낮이나 난민들의 어려움을 돌봐주고 이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프랑스 개척교회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난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로 인한 물가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가오지만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난민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이들의 고충과 아픔, 어려움을 돌아 보며 때로는 마음 아프고 때로는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을 생각하면 막막하기도 하지만 주님께 이들의 삶을 맡기며 기도 합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 드립니다.

기도제목

1. 4가정의 난민들이 계속해서 프랑스에 잘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2. 4가정의 난민들이 그들을 돕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갈 수 있도록
3. 앞으로도 더 많은 난민들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재정과 인력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4. 난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5. 5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 난민돕기 자선음악회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